주가	환율	금리
-7.51	-1.30	-0.05
1,366.44 (코스피지수)	950.80원 (원/달러)	4.67%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13.13	(-1.67)
다우(19일)	11,540.91	(-14.09)
나스닥(19일)	2,222.37	(-13.38)
닛케이	15,718.67	(-155.61)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7.25엔	(-0.76)
유로 달러 환율	1.2671달러	(-0.30)
3년만기 회사채	5.00%	(-0.05)
콜금리	4.46%	(-0.01)

GE에너지, 영광태양광발전소 설비 공급

GE에너지는 2008년까지 영광에 건설될 예정인 태양광발전소에 200W급 태양광 모듈과 주변 기기를 공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영광 태양광발전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3MW급으로 GE에너지는 미국 델라웨어 공장에서 태양광 설비를 생산, 2007년까지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GE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GE에너지가 수행한 태양광 사업 가운데 단일규모로는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중기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큰 성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있는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에 따르면 올해에만 33개 과제가 사업신청해 지난해 18개에 비해 15개(83%)나 증가했다. 상반기에 신청된 18개 과제 중 7개를 선정, 6억9천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후반기에도 15개 과제가 신청됐다.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은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노동강도 및 위해요소를 해소하는 장비·시스템·물질 등의 개발과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소(또는 대학)와 중소기업이 공동개발하는 컨소시엄과제와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개발과제로 나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해외인증 없어 수출못하는 中企 지원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는 수출요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이 없어 수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5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대상업체를 다음달 24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40~60%를 1인증 제품 800만원 이하, 시스템 3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시스템 인증분야의 경우 상시종업원 20인(단 ISO 14001의 경우 10인)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20만불 이상이어야 한다. 수출실적, Inno-Biz기업,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3년이내 기업, 신규참여기업 등은 우대한다. 문의(062)360-9194.

/이종태기자 jtlee@

■ 전남상권 분석 6

순천 연향·금당·왕지지구 상권은 199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과 함께 순천의 신도심으로 떠오른 곳이다. 상권의 범위는 국도 17호선과 국도 2호선이 만나는 조례사거리에서 전라선 철길사이 양편에 위치한 택지지구로 연향1지구, 금당1·2지구, 왕지지구가 해당된다.

순천인구 33% 밀집 '황금상권'

연향·금당·왕지 상권

여수·광양산단 근로자 몰려 구매력 커

금융·병원·학원·유흥업소 등 성업중

전체 면적은 69만8천여평에 아파트 거주자 8만여명을 포함해 27만 순천 인구의 33%가 몰려있을 정도로 탄탄한 배후인구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순천의 최대상권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금융가와 병원, 오피스빌딩은 물론 대형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와 의류점, 학원 등 생활밀착형 근린생활시설까지 갖춘 복합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아동의류점 매출 '쏠쏠'

이 상권의 특징은 여수와 광양을 잇는 교통축에 위치해 여천산단과 광양제철소 등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20~40대가 거주자의 주류를 이뤄 소비력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1992년부터 연차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상권이 형성된만큼 인근의 연향2·3지구는 물론 조성예정인 왕조운곡지구가 들어서더라도 향후 순천의 중심상권 역할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향1지구=92년부터 95년사이에 상권이 형성됐고 인구도 3만여명으로 가장 많다. 형성된지 10년이 넘어 상가밀도가 높고 가게들의 매출도 안정세에 접어드는 등 상권이 성숙돼 있다.

'동부상설시장 상권'으로 불리는 조례사거리에서 현대2차아파트앞에 이르는 삼각형지대는 신도심 최대의 상권으로 가게 임대료가 구도심인 중앙동 중심가에 육박하고 있다.

대로변인 조례사거리와 조례삼거리사이에는 병원과 금융기관이 몰려있고 대로변 양쪽에 위치한 상업지역에는 모텔과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 상권의 핵심은 하나은행에서 현대2차아파트 앞 하나로약국사이로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의류점, 이동통신대리점, 편의점,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패스트푸드점·아이크림 가게 등이 몰려있다.

주류를 이루는 업종은 의류점으로 중앙동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가 대다수인데 반해 이곳은 주택가답게 아동과 주니어의류점이 많고 매출도 쏠쏠한 편이다.

터미널부동산 박석현대표는 "의류점이 점령하고 있는 하나로약국~하나은행간 점포의 평당 임대가는 1층 기준으로 2천~2천500만원이고 20평짜리에 권리금이 1억원이나 붙은 곳도 있다"고 말했다.

평당 임대가 2,500만원

연향1지구의 또다른 상권은 순천교육청 주변에 형성돼 있다. 상권형성 초창기에는 주점과 유흥업소 분포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금당1지구로 관련 업종이 이동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이 주로 분포해있다. 특히 교육청주변에는 세무서, 금융기관 등 행정기관과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이 많아 음식점과 호프집 등이 성업중이다.

◇금당지구=금당고를 중심으로 윗편의 상업지역과 아랫쪽의 근린생활시설 상권으로 구분된다. 사각형 블럭의 상업지역에는 모서리에 한국은행과 MBC 등 대형 업무시설이 자리잡고 있으며 블럭 가운데로 쇠고기 전문점 등 대형 음식점과 음악홀,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유흥가가 밀집해 있다.

2~3년전까지 순천 최고의 유흥가로 명성을 날렸지만 최근에는 소위 잘나가던 음악홀도 예전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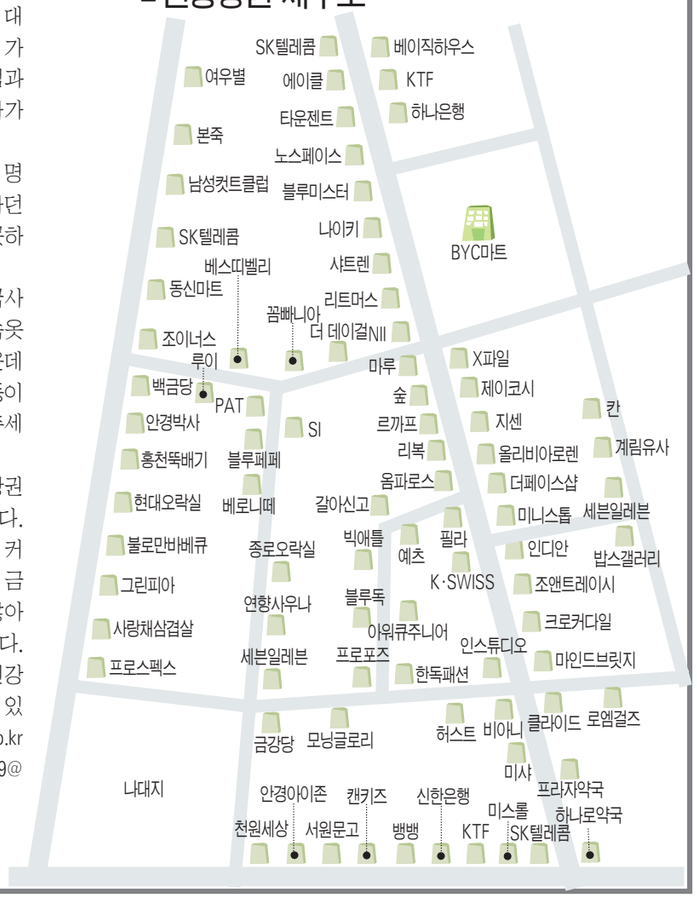
금당고에서 아래쪽 순천우편집중국사이에는 음식점, 미용실, 가전대리점, 속옷전문점 등 근린상권이 주를 이룬 가운데 학원, 당구장, 의원, 제과점, 문구점 등이 혼재돼 있어 복합상권으로 변화되는 추세다.

◇왕지지구=가장 최근에 형성된 상권으로 99년부터 아파트입주가 시작됐다. 연향1지구, 금당지구에 비해 평형대가 커 입주민들의 소득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금당지구와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아 지구내 상권은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다. 다만 고소득 입주민을 겨냥한 대형 건강랜드와 병원, 학원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연향상권 세부도



※다음은 광양 상권입니다.

■추석선물 어떻게 변했나

1950년대 계란 1960년대 설탕 2000년대 한우·수삼 '인기'

50년 동안 추석선물은 어떻게 변했을까.

2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광주신세계가 밝힌 추석선물 변천사에 따르면 1950년대는 토종닭과 고추, 찹쌀, 돼지고기, 계란꾸러미 등이 주를 이뤘다.

1960년대는 정백당으로 알려진 설탕이 최고급 선물로 등장했으며, 30kg들이 포장상품은 최상의 선물로 상류층에서 인기가 높았다.

산업화 시대가 도래한 1970년대는 식생활과 무관한 합성수지 그릇과 라디오, 화장품 등이 선물로 선보였으며, 조미료와 식용유가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경제부흥기인 1980년대는 치약과 비누 등 생활용품세트가 보편화됐고, 인삼, 꿀, 영지버섯 등 건강식품들이 각광을 받았다.

1990년대 초·중반에는 자연식품 등 지역특산물이 고급선물로 자리를 잡았고, 백화점과 구두 등 제조업체 상품권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러나 IMF(국제통화기금)를 거치면서 1990년대 후반에는 조미료, 식용유 등 1970년대 유행했던 선물이 다시 인기를 끌었고, 심지어 빨강 내복까지 맹위를 떨쳤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선물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진 가운데 송이, 활전복, 한우, 수삼 등이 일부 부유층 선물로 팔리고 있다.

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추석선물 변천사를 통해 우리 경제성장과 생활패턴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며 "그러나 50년동안 변치 않는 것은 선물에 담긴 '정성'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